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 5년 만에 정권교체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천614만여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천여 표에 불과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무효표 30만7천여표보다 적었다.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진영결집이 극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젠더 갈등까지 사회갈등의 골을 깊어진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여소야대 의회지형 속에서 '협치'와 '통합'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민심이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진보정권을 교체하면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 본인으로서는 '장외 0선'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작년 6월 29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진=apnews.com

일 정권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정치참여를 공식화하며 대선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앞선 13~19대 전·현직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직을 최소 1차례 이상 경험했고 대부분 당대표까지 역임하며 여의도 정치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의회정치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

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편, 대선과 함께 실시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석권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최재형 후보, 서울 서초갑에서는 조은희 후보,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후보,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무공천 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임병한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에너지 정책 일대 전환 불가피 … '탈원전' 가속화 될 듯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대변환이 예고됐다. 윤 당선자가 복(復)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5년 만에 180도 뒤집히게 됐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유보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기 재개는 확실시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삼아 강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원전 건설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 과정도 끝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가동중(8기는 정비중)이며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4기를 건설 중이다. 유보 중인 신한울 3·4호기도 조기 완공해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면 곧 원전 6기가 새로 가동하게 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한국 내 24기 원전 중 10기는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다. 원전 설계수명은 통상 30~40년이지만 60년 이



▲ 건설 유보 중인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

사진=gyeongbuk.com

상 가동하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공사를 통해 그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원전업계의 주장이다.

신규 원전 건설 검토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는 앞서 계획을 수립해 부지 물색 혹은 연구용역 단계에 있던

원전 4기(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를 백지화했다. 원점 재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원전 최강 국을 천명한 정부가 들어선 이상 최소한 검토는 이뤄질 전망이다.

원전 체제 복귀를 위한 과제도 많다. 가장 어려운 과제가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마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 고리·한빛·한울 원전 내 저장시설은 2031~2032년께 포화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과정에서 탈원전 여론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업계는 태양광·풍력발전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현실적 위험비용을 반영한다면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발전단기가 원전 발전단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